



질푸른 녹음과 클래식 향기가 어우러지는 6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가가 연주하는 작품은 언제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감동을 느끼게 하며 한동안 그 전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최고의 공연으로 관객 여러분께 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로, 화려함을 가린 깊은 색조, 서유럽이 모방할 수 없는 육중한 동독 관현악의 품격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2007년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마태 수난곡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올해 드보르작, 베토벤 등 정통 관현악 프로그램으로 관객여러분을 만납니다.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첼로의 거장이며 훌륭한 성악가의 열창을 연상시키는 매력을 지닌 미샤 마이스키의 협연으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의 진수를 선사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 일흔 다섯의 나이로 가장 원숙한 형태의 지휘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테 부르고스, 거장 첼리스트 시대의 마지막 주자 미샤 마이스키의 음악 혼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관객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동을 전해 줄 것입니다.

관객과 호흡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준 높은 공연문화의 보급을 위해 앞으로도 국내외의 우수한 단체 및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관객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의 시설개선과 공연관람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준비하는 세계 명품공연 초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